

# 광주시,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한다

## 5개 자치구와 '고독사 예방계획' 마련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 위험군 발굴 사회관계망·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

광주지역에서 매년 늘어나는 '고독사(孤獨死)'를 막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젊은층들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2023년 12월 19일자 광주일보 6면)에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다는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없도록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전 연령층의 고립을 막기 위한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4 고독사 예방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독사 전문 조직의 필요성, 고독사 관련 대응 매뉴얼 개발·교육도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2017년 105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광주지역 2018년 104건, 2019년 113건, 2020년 118건, 2021년 111건으로 꾸준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지역 인구 10만명당 고독사는 평균 7.62명으로 전국 6.6명보다 1명 가량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연결망과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으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간 지역 공동체 공간을 운영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회 관계망을 통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주력한다.

광주지역 1인가구는 2020년 24만(1인가구 비율 38.3%), 2021년 25만(39.8%), 2022년 26만(40.6%)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2030이 전체 34.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4.2%로 뒤따른다.

먼저 고독사 고위험군 1인가구 복지 1촌맺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관계망을 형성한다. 고독사 위험군인 남성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동구는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저소득·고령층에 집중됐던 대책도 손을 뻗었다.

서구는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홀로'와 '혼자', '연령기준'을 삭제

해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고독사 대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올해 광주지역 고독사 예방 계획은 '관계망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간 지역 공동체 공간을 운영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와 위기발굴단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동구), 7979센터(남구)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또 노랑후루라기, 위기가구 제보자 포상(북구), 고갈길 인사하기 캠페인(동구), 1313 이웃살림(광산구) 등을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고독사가 전연령층에서 발생하는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주 전 시민에 대해서는 광주다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다

움 통합돌봄은 기존돌봄을 우선으로 연계하며 기존 제도권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민은 소득·재산·연령·장애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식사, 동행, 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 청년층의 경우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마음건강상담소 등을 통해 은둔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고독사 위기군인 중·장년층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건강관리를 돕고 빛고을 50+센터를 운영하며 중장년 맞춤형 다양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공유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거동 불편 어르신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합니다

### 북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 장기요양급여자 돌봄서비스 연계

광주시 북구가 올해부터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돼 이월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 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 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돌봄 분야 성과라는 것이 북구의 분석이다. 북구는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다.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

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북구는 본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풍차 위기가정'에 지원금



광주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가 최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이웃을 위한 '희망풍차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1·2동 '건강지도자' 모집

### 2월 8일까지 접수

광주시 동구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월 8일까지 지원 1·2동의 건강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제4기 건강지도자'를 모집한다.

'건강지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모아 조직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지역주민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일컫는다.

제4기 건강지도자에 선정되면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마을의 건강 문제점 찾기 및 문제 해결 활동 ▲마을 건강 관련 자원 발굴·활용 ▲주

민 대상 건강 관련 정보 제공·홍보 ▲건강동아리 구성 및 건강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지원 1·2동에 거주하며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 20여 명이다. 응모는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 주도 건강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활동할 건강지도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건강지도자 양성에 힘써 주면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62만3300원→71만 3100원 인상 무등산 숲 놀이터 참여기관 모집

정부가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을 했거나 임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관할 시군구(읍면동)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변경됐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는 167만 1334원 이하로, 금

용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월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이 '숲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6일까지 '팝자락 팝자락 무등산 숲 놀이터'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숲 놀이터 프로그램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등산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연간 커리큘럼 형식이다. 자연놀이의 일환으로 주상절리대 쌓기, 양사파충류 엄마 찾기, 도꼬마리 씨앗 던지기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는 2025년 취학 예정인 7세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8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지구 등에서 이뤄진다. 모집 대상 기관은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3 곳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thankyou@knps.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